

##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n car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Chae, Joung Mi<sup>1)</sup> · Kim, Ki Young<sup>2)</sup>

<sup>1)</sup>Specialized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sup>2)</sup>The doctor's cours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Background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caring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volunteer activity and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on caring.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418 students (194 males, 224 female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were randomly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2.0. For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us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influence of volunteer participa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caring.

**Findings/Conclusions:** The main results shown in the analysis were: First, the level of caring was higher in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than the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Second, the level of caring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female group than in the male group. Third, the level of caring of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for a long tim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A particularly noteworthy result is that the main factor influencing the caring of other people's feelings, which is a sub-factor of caring is the amount of time spent in volunteer activities.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caring,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but to provide guidance to participat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Keywords:** Volunteer, adolescent, caring, concession to others, Consideration of others' feelings, concern for others

---

**Corresponding Author:** Chae, Joung Mi

Specialized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353,  
Mangu-ro, Jungnang-go Seoul,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2-9662-682X>

Email:koiai5457@gmail.com

Received: August 30, 2021 Revised: September 24, 2021 Accepted: September 24, 2021 Publication: September 30, 2021

##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중학생 청소년의 배려에 미치는 영향

채정미<sup>1)</sup> · 김기영<sup>2)</sup>

<sup>1)</sup>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sup>2)</sup>숭실대학교 프로젝트경영대학원 박사과정

**배경:** 본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배려의 차이와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목적:** 청소년 자원봉사 영역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및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충청권 소재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418명(남 194, 여 224)을 무선배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Win. Vr을 활용하였고, 분석의 방법은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와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첫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배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배려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시간동안 참여한 집단의 배려 수준이 적은 시간 참여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 고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시간 참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청소년의 배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되 좀 더 많은 시간동안 참여 하도록 지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있다.

**시사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이론적 토대 마련과 함께 향후 청소년 관련 지역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자원봉사, 청소년, 배려, 타인양보, 타인심정고려, 타인염려

**교신저자:** 채정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53

ORCID: <http://orcid.org/0000-0002-9662-682X>

Email: [koiai5457@gmail.com](mailto:koiai5457@gmail.com)

**투고일:** 2021. 08. 30.

**심사일:** 2021. 09. 24.

**게재확정일:** 2021. 09. 24.

**발행일:** 2021. 09. 30.

## I. 서론

최근 2년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 경제, 생활환경 등과 같은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력 수준이나 대인관계 등과 같은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론 또한 형성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를 통해 또래관계를 경험하고 사회적 정서적 영역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이 부정적인 영역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에는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주요한 시기에 해당하고 기본 생활습관이나 도덕성의 함양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결여되는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양성 될 수 있다[1]는 예전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배려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배려교육의 필요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소년기(사춘기)를 포함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에 해당한다[2].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타인과의 거리두기 일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배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배려는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3]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배려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존중감, 사교성, 칭찬, 양보 및 책임감의 수준이 높았고 공격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3-5]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의 본질을 도덕적 판단력의 결여 또는 미숙으로 보고, 이와 같은 도덕적 판단력을 나의 이득과 남의 이득이 서로 상충될 때 그러한 갈등과 부조화를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결해 낼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6]. 이 외에도 배려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나 보살핌,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도덕성이라고 하였고[7], 배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자신이 중심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두터운 이타주의라고 하였다[8]. 그렇지만 아직까지 배려에 대하여 통일된 개념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배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과, 타인에게 마음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곧 배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와 관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배려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타인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야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는 청소년들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배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9].

자원봉사란 특정한 사회적 요구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기대나 관심 없이 행하는 활동이며,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복귀 또는 회복을 목표로 생겨난 개념이 현대적 개념의 자원봉사다[11]. 즉, 자원봉사란 기본적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12].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13].

행정자치부가 2017년 조사 발표한 1월까지 자원봉사 활동실적 중 성별, 연령별 봉사인원이 다. 연령별 실 인원 비율을 볼 때 총569,495명 중 10대 이하가 249,098명으로 4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대에서 50대 까지는 대체적으로 실 인원 비율과 연인원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은퇴나 자녀 성장 등의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60대 이상은 실 인원 비율보다 연인원 비율이 높은 모습이며 참여횟수도 높다. 그러나 10대 이하는 실 인원 비율보다 연인원 비율이 현저히 낮고 참여횟수도 2.3회로 저조하다[14]. 그러므로 10대에 해당하는 중학생 수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활동으로 그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들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의 4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직 매우 미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아실현, 인성개발, 적성발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교육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청소년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배려행동 즉 타인심정고려, 타인에 대한 양보심, 타인에 대한 염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자원봉사 영역의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중학생 청소년 배려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원봉사 활동이 중학생 청소년의 배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원봉사

자원봉사(Voluntarism)란 공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활동이다[20].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란 특정한 의무를 지지 않은 봉사자들이 수혜대상들에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무보수의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22]. 더 나아가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23],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일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람[24]을 자원봉사자로 부른다. 이처럼 자원봉사 관련하여 그 개념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원봉이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 등을 타인을 위해 제공하는 이타 주의적 행동의 하나로서 인식[25]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 나타난 개념을 종합해 보자면, 자원봉사는 영리적인 보상을 받음이 없이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실천하고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50]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자면, 호주 자원봉사 활동지원기구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은 공식적인 자원봉사와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포함한다[27]. 이 외에도 호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각 핵심 요건으로 재정적 이득 없음, 충분히 주어짐, 공익을 위해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자원봉사의 형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아무 곳이나 나름의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것만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27]. 그리고 자원봉사는 시간적 기부가 필요하다. 기부에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돈이나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한 헌혈과 같은 형태는 자원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27]. 자원봉사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징들 외에도 영국의 자원봉사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환경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27]. 물론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이타적 행위에 참여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인제가 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체계성과 구조적 틀을 갖춘 활동이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공익적인 차원의 사회적 기능 외에도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27].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청소년기가 아동기 때보다 사회에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능력이 더 높아 이타적 행동이 증가하며[29], 자원봉사는 이타적 행동의 성향을 발생시키고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30]. 그러므로 자원봉사가 청소년의 이타적인 성향의 정체성을 유도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촉매작용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매우 의미 있

는 활동이 될 것이다[51]. 이 외에도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제공하고[32], 학생들을 인간적 자질을 가진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변혁적 교육 경험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민주적 삶의 성찰적 실천에 필요한 지식, 능력, 가치관, 습관 등에 대한 공공의 자아 시민 교육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33]. 이상 나타난 결과들로 보아 본 연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이타적 행동 즉 배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다.

한편,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여가활동이다[34]. 여가활동과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체험을 하게 되므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이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35]. 그리고 이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은 공동체 지향적인 특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36] 때문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탈행동, 타인에착, 정서조절,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37].

## 2. 배려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사람이라면 윤리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윤리적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무엇인지, 옳거나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이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삶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윤리교육은 청소년의 인성과 지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지향점을 고찰해 볼 수 있는 틀 내지 준거를 안내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지성과 인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윤리교육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근거가 된다(김아영, 2020). 물론 배려가 전제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자아와 그러한 자아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전통 철학이 전제하는 그것과 매우 다르다. 배려는 윤리학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38].

배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씬 이라고 정의한다[39]. 그리고 영어 사전적 의미[40]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려는 영어로 care, concern, consideration으로 사용된다. 이때 care(또는 caring)는 걱정, 주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돌봄, 보살핌의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배려의 개념에 대하여, 김아영[38]에 따르면 배려란 자아에 내재한 관계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대상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망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 대상이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욕구와 맥락을 갖는 개별화된 대상들을 지칭한다. 즉 배려가 상징하는 관계적 자아는 구체적 타자와 관계맺음을 갖는 자아를 말한다[38].

청소년의 배려 구성요인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본예의, 친절·양보·용서 및 연민·헌신·봉사와 같이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가 하면[10],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타인심정고려요인,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남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양보심요인,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와 같은 타인염려요인과 같이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배려의 요인구분을 타인심정고려, 양보심 및 타인염려와 같은 요인구분에 따랐다.

배려의 특성[41]을 살펴보면, 첫째, 배려는 관계적이다. 배려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고, 유대적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나와 모르는 사람과도 배려는 실천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려는 애정적이다. 배려에서 관계적 만남이 선행 필수조건이라면, 애정은 그 안에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후행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배려는 인지적 측면보다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는 것이다. 배려는 이타심을 토대로 한 정서적 결정의 느낌이 강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넷째, 배려는 자발적이다. 배려의 행동은 스스로의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주로 적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배려의 본질에는 적극적인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배려는 관계적, 애정적, 정서적, 행동적, 자발적 및 적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배려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관계지향성으로 볼 것인지, 수용적 입장에서 볼 것인지, 맥락적 입장에서 볼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려는 도덕교육의 실천적 적용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1].

배려는 핵가족화, 결과를 강조하는 성취주의, 학교폭력, 전자기기와의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의 핵심기술[42]일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43]. 그리고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써 또래와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책략을 또래관계기술이라고 보았다[53]. 이런 또래관계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또래보다 친구가 많은 청소년에 해당하고,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또래관계기술을 사용해 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음을 의미한다[45]. 반면 또래관계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학교부적응과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46, 47]. 더 나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또래관계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주요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관계 맺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려 경험이 필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자 선정 및 데이터수집

본 연구를 위해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중학교 입학 후 출석 기간이 중학교 3학년이 입학 하였던 해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동급생간 접촉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 4. 26.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충청도에 소재하는 청소년 관련시설 32개소(청소년 문화의 집 18개소, 청소년 수련관 12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를 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군집표본추출방법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시설에 연구자와 공동연구원 2명이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 대하여는 연구에 따른 유의사항과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 안내 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해당시설에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청소년 418명(남 194, 여 224)을 무선배치 하였다. 이들 중 자원봉사에 1회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99명(47.6%),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19명(52.4%)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N(%)	
	참여	비 참여
성별	남	117(53.4)
	여	102(46.6)
	전체	219
학년	중 1	119(54.3)
	중 2	100(45.7)
	전체	219

#### 2. 연구 도구

청소년의 배려를 측정하기 위해 김소영(2005)이 사용한 배려심 척도를 사용하였다[9]. 김소영의 척도는 타인고려, 양보심, 염려와 같이 3개의 하위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를 위해 이 척도 전체 문항들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주축분해법의 공통요인분석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들 간 상관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교사각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위영역이 3개로 결정되어 있지만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적절성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값이 .958로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 된 하위요인과 그에 따른 요인별 문항은 양보심(10문항), 염려(12문항), 타인심정고려(5문항)와 같이 모두 27문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개요인 27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별 채점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다. 총점이 높을수록 배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하위 요인 모두 .91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자세한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의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배려의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N=418)

구분	문항수	Cronbach's $\alpha$	
		김소영의 연구	본 연구
배려	양보심	.819	.930
	염려	.787	.939
	타인심정고려	.809	.912
	전체	-	.967

본 연구에서의 응답자의 학년 구분은 중학교 1학생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횟수 및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시간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참여한 횟수와 참여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 간 배려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집단과 참여한 적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 처리하였다. 두 집단 간 그 외 다른 모든 조건은 통제하지 않고 오로지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배려의 차이 내지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Win. Ve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첫째, 인

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와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려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배려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결과 유의수준이  $p > .05$ 보다 큰 .124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4.038, p < .001$ ). 즉 남성보다 여성 집단의 배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따른 배려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배려의 차이분석결과

구분	M	SD	Mean Difference	<i>t</i> ( <i>df</i> )	Sig. (2-tailed)	
성별	남	3.92	.68	.04	-4.038(416)***	.000
	여	4.18	.62	.04		
학년	중1	4.09	.66	.04	.983(416)	.324
	중2	4.02	.66	.04		

\*\*\* $p < .001$

### 2. 자원봉사 활동 참여횟수 등에 따른 배려의 차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자면, 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10회 이하인 집단의 평균점수가 4.6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6회 이상 참여한 집단의 평균

점수는 4.75(±.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간에 따른 배려의 차이 분석결과, 자원봉사 활동에 5시간 이하 참여한 집단의 평균점수는 4.6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1시간 이상 참여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4.87(±.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930, p<.05$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21시간 이상 참여한 집단이 15시간 이하 참여한 집단에 비해 배려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5시간 이하 참여한 집단이 5시간 이하 참여한 집단에 비해 배려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많을수록 중학생 청소년 배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와 참여 시간에 따른 배려의 차이 분석 결과

구분		N	M	SD	F	p	Scheffé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a	152	4.64	.20	1.711	.166	/
	b	35	4.71	.20			
	c	5	4.67	.22			
	d	7	4.75	.09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간	e	154	4.64	.20	2.930*	.027	i<g,f<e
	f	34	4.70	.20			
	g	2	4.68	.18			
	h	5	4.70	.22			
	i	4	4.87	.05			

\* $p<.05$

a: 5회 이상 참여, b: 10회 이상 참여, c: 15회 이상 참여 d: 16회 이상 참여

e: 5시간 이하 f: 10시간 이하 g: 15시간 이하, h: 20시간 이하, i: 21시간 이상

### 3.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배려의 차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배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결과 유의도 값이  $p>.05$ 보다 큰 .085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2.808$ ,

$p < .001$ ). 즉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배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배려의 차이

구분	M	SD	Mean Difference	t (df)	Sig. (2-tailed)	
활동	참여	4.65	.20	.014	32.808(416)***	.000
	비참여	3.52	.44	.030		

\*\*\* $p < .001$

#### 4.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와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중공선성 해당 여부를 검증하였고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3.344이고 Durbin-Watson 값이 1.38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3.019, p < .01$ ).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학년 역시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960, p < .01$ ). 한편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간으로 나타났다( $\beta = .376$ ). 즉, 중학생 청소년의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 활동 관련 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고학년일수록 배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자연발생적 성장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려의 수준 역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양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3.231로 나타나고 Durbin-Watson 값이 .70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양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2.541, p < .05$ ). 반면 그 외 요인들은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양보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양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자원봉사 활동 관련하여 성별뿐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을

〈표 6〉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2-tailed)
		B	S.E	$\beta$		
배려	상수	4.662	.030	-	152.281	.000
	a	-.014	.010	-.183	-1.465	.145
	b	.013	.004	.376	3.019**	.003
	c	.012	.029	.030	.436	.663
	d	-.087	.029	-.214	-2.960**	.003
R <sup>2</sup> =.090, $\Delta R^2$ =.072 F=4.818** Durbin Watson=1.388, VIF=3.344						
양보심	상수	4.677	.030	-	156.064	.000
	a	.002	.010	.022	.169	.866
	b	.002	.004	.065	.511	.610
	c	.073	.029	.179	2.541*	.012
	d	-.028	.029	-.071	-.964	.336
R <sup>2</sup> =.046, $\Delta R^2$ =.027 F=2.358** Durbin Watson=.703, VIF=3.231						
염려	상수	4.701	.041	-	114.830	.000
	a	-.013	.013	-.130	-1.002	.317
	b	.010	.006	.221	1.717	.088
	c	.050	.039	.090	1.271	.205
	d	-.047	.040	-.087	-1.166	.245
R <sup>2</sup> =.031, $\Delta R^2$ =.011 F=1.556 Durbin Watson=1.929, VIF=3.344						
타인 심정 고려	상수	4.609	.053	-	86.400	.000
	a	-.031	.017	-.220	-1.784	.076
	b	.026	.008	.423	3.460**	.001
	c	-.086	.051	-.113	-1.672	.096
	d	-.185	.052	-.251	-3.530**	.001
R <sup>2</sup> =.121, $\Delta R^2$ =.102 F=6.651*** Durbin Watson=1.658, VIF=3.325						

\*  $p < .05$ . \*\*  $p < .01$ . \*\*\*  $p < .001$ .

a: 봉사활동참여 횟수, b: 봉사활동 참여 시간, c: 성별, d: 학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3.325로 나타나고 Durbin-Watson 값이 1.65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450, p<.001$ ),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학년 역시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30, p<.001$ ). 한편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자원봉사 관련 요인은 참여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423$ ). 즉 청소년의 타인심정고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주요인이고, 다음으로 봉사활동 참여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타인심정고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 자원봉사 활동 관련 요인들은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 관련 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간이었고, 다음으로 학년이 타인심정고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학년에 따른 영향력 분석에서 자연발생적 성장요인이 배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즉, 단순히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배려의 수준 역시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결과로 보아 자원봉사 관련 요인을 통해 타인양보의 수준을 향상 시킬 때에는 성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3.344로 나타나고 Durbin-Watson 값이 1.92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에 미치는 회귀분석결과 자원봉사 활동 관련 어떠한 요인도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3.325로 나타나고 Durbin-Watson 값이 1.65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450, p<.001$ ),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학년 역시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30, p<.001$ ). 한편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자원봉사 관련 요인은 참여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423$ ). 즉 청소년의 타인심정고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참여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타인심정고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그 외 자원봉사 활동 관련 요인들은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고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간이고, 다음으로 참여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타인심정 고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학년에 따른 영향력에서 자연발생적 성장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려의 수준 역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따른 배려의 차이와 자원봉사 활동이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배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배려의 차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배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년에 따른 배려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 활동에 21시간 이상 참여한 집단에서 배려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시간 이하 참여한 집단의 배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시간 참여할수록 중학생 청소년 배려의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고, 봉사 횟수가 주 1회 이상, 자아실현 자원봉사 활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17] 연구결과와,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 관련특성의 발달에도 기여한다[48]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 활동 관련 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학년 역시 중학생의 배려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활동으로 얻은 만족감이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게 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한 연구결과[18]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중학생 청소년의 배려수준 등과 같은 부분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양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자원봉사 활동 관련하여 성별 외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염려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그리고 배려의 하위요인인 타인심정 고려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 관련 주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실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개인 성취 및 만족감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9]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취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배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별에 따라 배치하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구분된다면 중학생 청소년의 배려 수준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이 가지는 함의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배려 관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청소년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정영근(1996).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Jung YG (1996). Understanding Humanity and Education. Seoul: Muneumsa.
2.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3. 왕경수, 김현영(2010). 개별적 배려, 내적 동기, 도전적 직무, 자원, 창의성 및 업무성과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학회지, 6(2), 51-71. Wang KS, Kim HY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onsideration, intrinsic motivation, challenging tasks, resources, creativity, and performance. Korean Accident Development Society, 6(2), 51-71
4. 박혜연(2010). 배려 증진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배려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Park HY(2010). The effect of caring promotion group guidance program on caring and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 조인실(2008). 배려 증진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타인존중 태도와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Jo IS (2008). The effect of consideration-promoting group guidance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pect for others and friendshi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6. 문용린(1990).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 그 본질과 대책. 민주문화아카데미 민주문화논총. 창간호, 32-34. Moon YR (1990). Moral crisis in Korean society, its nature and countermeasures. Democracy Culture Academy Democracy Culture Journal. First issue, 32-34.
7. 정미연(2000). 한국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Jeong MY(2000). A study of consideration-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orea University.
8. 이수연(2001). 배려윤리의 도덕교육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Lee SY(2001). Moral education theory of caring ethics. Master's thesi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9. 김소영(2005). 중학생의 배려심: 요인구조 및 관련변수,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SY(2005). Middle School Students' Consider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ed Variables, Cha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0. 박효정, 정광희(2001).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Park HJ, Jeong KH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ral indicators in Korean society (Ⅱ).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11. 최은희(2007). 유아의 또래 지위와 마음의 표상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Choi E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er statu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n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2. 조일(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Cho HY, 1998.) Contemporary Society and Volunteerism, Seoul: Hong Ik-Jae.
  13. 원미순, 박혜숙(2010).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Won MS, Park HS(2010). The effe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civic consciousness. Proceedings of the Korean.
  14. 윤희숙(2017). 청소년 자원봉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Yoon HS (2017). A study on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of youth volunte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15. 우정자(201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335-363. Woo JJ (2012). The effect of volunteer recognition and reward on youth's community capita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volunteer satisfaction. Health and Social Research, 32(2). 335-363.
  16. 지성미(200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Ji SM (2004).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17. 이에련(2016)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봉사만족도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2016, vol.13, no.2, pp.181-209. Lee YL (2016). A study on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f self-realization volunteering. Asia-European Society, vol. 13(2), pp.181-209
  18. 주계순, 권일남(2018).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1-25. Ju GS, Kwon IN (2018). Effect o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on School Adjustment -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Korean Youth Activity Research, 4(2), 1-25.
  19. 강명례(201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ang MR(2019) A study on the persistence factors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 Hyupseong Graduate School Ph.D. thesis
22. Anheier & Salamon(1999), VOLUNTEERING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ITIAL COMPARISONS Volume 62, Issue 4, Pages 43-66.
  23. 호스피스 총론(2010). 한국호스피스 협회 출판부 Hospice General(2010). Korea Hospice Association Publishing Department
  24. Gidron, B.(1978). Volunteer Work and its Rewards. Volunteer Administration, 11, 18-32.
  25. Taylor, R. F.(2004). Extending conceptual boundaries: Work, voluntary work and employment. Work, Employment & Society, 18(1): 29-49
  26. 서재범(2020).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역량증진과 참여인식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eo JB(2020).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Competency and Participation Recognition Throughout the Overseas Volunteer Participate Motivation, Ph.D. thesis from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9. Call, Martimer & Shanaham(1995), Helpfulness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1). 129-138.
  30. Johnson, Beebe, Mortimer & Snyder(1998), Volunteerism in Adolescence: A Process Perspective, 309-332.
  32. 김주현, 김보혜(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원봉사 만족도와 리더십 생활기술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6(2): 155-169. Kim JH, Kim BH(2011). Analysis of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volunteer satisfac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Industrial Information Society of Korea 16(2): 155-169.
  33. 박세경·강혜규·이준영·정진경·한동우·박소현(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20. Park SK, Kang HG, Lee JY, Joung JK, Han DW, and Park SH(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vel of social capital and private welfare resources between countries. -Focus on volunteer activities and don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09-20.
  34. Schneider, Iwasaki(2003), Leisure, stress, and coping: An evolving area of inquiry Volume 25, Issue 2-3, April 2003, Pages 107-113
  35. 권해조(1987). 대학생 불런티어활동에 관한 실증조사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won HJ(1987). Empirical Research on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Gwon HJ (1987),
  36. Jeffrey P. Cohn(2008). Citizen Science: Can Volunteers Do Real Research?. BioScience, 58(3). 192-197.
  37. 허성호, 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 143-164. Seong-HH, Jeong TY(2010).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Adolescent Development." Korean Adolescent Research 21(3).
38. 김아영(2020). 구체적 타자 중심 배려 윤리의 도덕 교육적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AY(2020) Moral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pecific other-centered caring eth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Ph.D. thesis.
3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민족문화연구51.1-53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National Culture, 2009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National Culture Research 51.1-53
40. 서정수(2005) 『21세기 한영대사전』, Seo JS, 『Korean-English Dictionary of the 21st Century』, (Han Sebon, 2005)
41. 김범원(2012). 배려윤리의 교육적 실천 가능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BW(2012).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acticality of caring eth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42. 이연수(2011). 초등학생용 자기성찰 척도(SRS) 개발 및 타당화, 초등도덕교육, 35. 157-188. Lee YS(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lf-Reflection Scale (SR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Moral Education, 35. 157-188.
43. 문정애(2008).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자아초월심리학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17(2). 111-136. Moon JE(2008).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Transpersonal Psychology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character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17(2). 111-136.
45. 심보숙(2008). 부모 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Shim BS(2008). The effect of parent-child attachment on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 skills. Ky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46. 고옥란(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 또래관계기술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oh OR(2012).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skil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on school adap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47. 김지원(2009). 교육학(하), 열린교육:파주. Kim JW(2009). Education (bottom), Open Education: Paju.
48. 이복희(2009).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2. 181-196. Lee BK(2009). The selection and influence of delinquent friends in adolescence. Conference of the Korean Youth Association, 2. 181-196.
49. 김동배(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 사회복지정책, 36(3), 471-494. Kim, DB(2009). A Study on the Asset Typ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Activities. Social Welfare Policy, 36(3), 471-494.
50.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9).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파주 Korea Social Welfare Council, 1979 Theory and Practice of Volunteerism. Changjisa Paju
51. 홍연숙(2010). 언어 변이와 변화. 사회언어학, (2010): 29-60 Hong, YS(2010). Language change and change.vol.18 NO.2
52. 허혜진(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증진을 위한 창작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eo HJ(2010). Effect of Creative Music Drama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Peer Relationship Skills for Children in Regional Children's Centers Master's thesis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